

한국 BMS 제약, 밀알복지재단과 청년 암환자 자립 돕는 ‘리부트(Reboot)’ 3기 지원자 모집

- 암 투병으로 사회와 단절을 경험한 청년들에게 경제적·정서적 지원
- 만 19~39 세 국내 청년 암 환자 대상으로 7 월 20 일부터 8 월 17 일까지 모집

(서울, 2020년 7월 20일) - 한국BMS제약(대표 김진영)은 자사가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(이사장 홍정길)이 진행하는 청년 암환자 사회 복귀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 ‘리부트(Reboot)’가 3기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.

올해로 3회째를 맞은 ‘리부트(Reboot)’는 암 투병과 치료로 학업 및 사회와 단절을 경험한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·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BMS제약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. 사내 봉사활동 팀인 H2O(Hearts & Hands as One)를 주축으로 진행되며,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부금과 회사의 후원금으로 이뤄진 1:1 매칭 그랜트로 운영된다.

이번 3기 모집은 암 진단 후 초기 적극적인 치료(수술, 항암 치료, 방사선치료)를 완료하고 기준 중위소득 80% 이내인 만 19-39세의 국내 청년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. 7월 20일(월)부터 8월 17일(월)까지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(www.miral.org) 공지사항에 게재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(miral9135@hanmail.net)로 접수하면 된다.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명의 리부트 프로그램 대상자들은 오는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9개월간 본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취업·교육 및 문화 정서 지원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.

작년 리부트 2기에 모집된 10명의 청년들은 자립 지원을 통해 영어 교육, 니트레터링 수업, 사진 촬영기법 수업, 네일아트 전문 교육, 취업 관련 서적 구매 등 자신이 세운 계획을 리부트를 통해 실현했고,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. 또한 정서 지원을 통해서 투병 기간 동안 미뤄야 했던 가족여행 및 외식, 운동, 취미생활 등을 누리며 지쳤던 마음을 위로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.

혈액암을 극복하고 스포츠브랜드 수입 1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김선호씨(가명, 32세)는 “리부트 프로그램은 막연했던 미래나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나갈 수 있게 해준 소중한

계기”라며, “저 스스로도 다른 암 환자들의 리부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소감을 전했다.

한국BMS제약 김진영 대표는 “암 환자들은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더라도 투병 이전의 삶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, 그 중에서도 청년 암환자들은 학업 및 경력 단절로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더 부족한 편”이라며, “리부트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암환자들이 투병 경험을 딛고 당당히 사회 복귀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”고 전했다.

한편, 한국BMS제약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 아래 지난 1999년부터 ‘동명아동복지센터’, ‘세이브더칠드런’, ‘굿네이버스’ 등 다양한 기관과 함께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. 청년 암환자를 지원하는 ‘리부트(Reboot)’ 프로그램 외에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함께 소아암 아동청소년의 치료비와 성장 활동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‘리부틴 (RebooTeen)’ 후원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질환 치료를 넘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.

###

Disclaimer

한국BMS제약은 질환과 의약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며, 본 자료는 특정 제품에 대한 대중 광고나 판촉목적과는 무관합니다. 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사 작성 및 게재 여부에 대해서는 기자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